

광주시, 전국 최초 자체 발전 태양광에너지로 수돗물 생산

동구 용연정수장 유류부지 발전소 설치
발전 사업자로부터 생산 전력 직접 구매
한전 송·배전망 거치지 않고 전력 공급
계통 안정성·전력효율 ↑...자립모델 주목



광주시가 자체 발전한 태양광에너지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탄소중립 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동구 용연정수장에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지난 8일부터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 PPA)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10월17일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빚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 현대건설과 함께 체결한 '용연정수

장 유류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직접 PPA 발전 협약'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태양광 발전사업(빚고을시민 용연PPA 햇

빛발전소)'을 진행한다. 빚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은 발전 사업자로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유지·관리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발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한 후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고, 현대건설은 전력 거래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빚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은 공사비 3억4천만원(보조금 1억7천만원, 자부담 1억7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용연정수장 내 유류부지 1천42㎡(약 436평)에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마쳤다. 최대 사업 기간은 30년으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2차례까지 사업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민간사업자 간 사전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태양광발전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PPA 방식을 사

용하면 전력 사용자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렴하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전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생산·공급해 계통 안정성과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민·관이 상생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로서 전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협약의 의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일용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 사업은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사업과 연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직접 PPA 방식의 수돗물 생산은 전력요금 절감과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남도의 다양한 매력”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도 '전남 관광사진 공모전' 8월 접수
대상 300만원 등 총 1천700만원 상금

전남도가 자연경관과 관광지,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수준 높은 사진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전남 관광사진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남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매력 있는 섬, 관광지, 축제 등을 주제로 2024년 이후 촬영한 작품을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응모작 접수 기간은 오는 8월3일부터 31일까지다.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작품성·창의성·활용성 등이 우수한 작품 20점을 선정해 10월 시상

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천700만원 규모다. 대상(1점) 300만원, 최우수상(3점) 각 150만원, 우수상(5점) 각 80만원, 장려상(7점) 각 50만원, 입선(10점) 각 20만원이다. 수상작은 전남도 관광 홍보물과 각종 마케팅 자료, 온·오프라인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출품 규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사진 공모전은 전남 관광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진을 통해 전남의 멋진 순간을 기록해 널리 알리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립도서관,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 모집

광주시립도서관은 14일 "초등학교 3-6학년이 직접 작가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을 무등도서관 1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넘어 기획부터 편집까지 그림책이 탄생하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출간 도서는 시민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창작교실은 5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매주 토요일 무등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15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go.kr)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등도서관(062-613-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창의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 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중동전쟁 여파 지역 건설업 위기 극복 총력

광주시·국토부, 건설업계 호남권 간담회
현장 어려움·경영 위기 극복 지원 논의

광주시와 국토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중동전쟁 상황이 지역 건설업계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건설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날 열린 광주·전남·전북 간담회가 첫 번째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장과 정상태 익산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광주시 고광안 시장 권한대행과 박진화 도시공간국장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건설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권혁진 부회장과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지원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자재수급 등 건설현장 애로 해소, 지역 건설기업 경영 위기 극복 지원 방안, 첨단

전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대책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긴급 금융 지원 및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특례 대상 확대를 비롯,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높이기 위한 건설 현장 방문, 정례적인 건설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묘 이감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감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감 전문 ☎ 문의) 062-464-3466